

# 부처님오신날 학술행사 '다양'

### '한국불교 미래' '다종교사회속 역할' 등 다뤄

부처님 오신날 5월을 맞이해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학술회의가 다양하게 개최된다.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5월17일 동국대가 개최하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학술대회와 5월20일부터 4일간 조계종 총무원이 여는 불교예술에 관한 '불국사 특별세미나', 5월14일과 16일 중앙승가대와 한국불교사회연구

소가 마련하는 학술회의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역할, 불교예술, 복지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불교의 방향 및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회암사와 한국불교학회는 5월4일과 11일 '지공·나옹·무학스님 등 삼대화상의 재조명'과 '사명대사 유행의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학술회의를 개최해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5월 학술행사

주 제	일 시	장 소	주 최	발 표 자
삼대화상의 재조명	5월4일 오후1시30분	회암사 설명회	회암사	허홍식·이병욱 정인표·신규택
사명대사 유행의 재조명	5월11일 오후1시30분	밀양시청 대회의실	한국불교학회	김영태·이진오
불교노동복지의 실태와 서비스개선 방안	5월14일 오후10시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김용택·최정석 김응철·박진석
21세기 사회변화와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	5월16일 2시	조계사 문화회관	한국불교 사회연구소	송희식·노부호
다종교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	5월17일 오후1시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동국대	권기홍·김영태 정병호·현각스님
불교문화	5월20~23일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종 총무원	홍기삼·김재홍 정부기·박범준 홍은식교수등

# 지구촌 비교종교학 세미나 인터넷에 잇단 공개 '관심'

올해 들어 불교와 타종교의 공통점을 찾는 비교종교학 세미나가 세계의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세미나 결과가 인터넷 상에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최초의 비교종교학 세미나는 <분쟁의 원인: 불교와 힌두교>란 주제로 지난 2월 방콕에서 열린 종교 회의이다. 태국은 그동안 힌두교와 불교의 갈등이 지속됐던 국가. 따라서 이 세미나는 방콕(태국)에서 본부를 둔 세계불교문화재단(WBCF)의 장 부엔드라 모디, 태국불교대학, 세계불교교섭기구, 태국불교협회 등이 주관해 태국 종교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힌두교의 여신 비슈누는 부처님의 9번째 환생이었

다'라며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을 찾은 '이러한 사실이 두 종교의 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또한 오는 6월 17일부터 열리는 <정의와 자비: 불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역시 주목 받는 종교 세미나이다.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7월26일까지 6주동안 열리는 큰 행사. 존 리더교수(브라운 대 종교학)는 '불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난 '정의'와 '자비'의 의미, 공통점을 탐구하는 자리'라고 세미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세미나는 5월1일까지 참가 신청이 마감되

며 존 리더 교수의 인터넷 메일 주소 jreeder@brownvm.brown.edu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 경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불교-기독교 대화>가 주관한 이 세미나에는 데이비드 체플교수(하와이대) 나가토미교수(하버드대) 등을 비롯 유수한 종교학자들이 참가해 현재 지구촌 문제로 떠오른 윤리·여성·노동 문제 등에 불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 종교간 공통점·상호화합법 연구 윤리·여성·노동등 국제문제도 분석

중국 비단길에 위치한 거대한 불교미술의 보고(寶庫) '돈황'의 불교미술과 역사를 조명할 학술강연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돈황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드리 워트필드 교수(런던대)는 4월 20일 연대 동문화관 시청각실에서 20시 열린 강연회에서 '돈황의 미술과 역사' 강연회에서 '돈황 명사산(鳴沙山)의 千佛洞'이라는 주제로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돈황의 문화적·종교적 의미와 지

“돈황의 미술·역사” 강연 런던대 워트필드 교수



워트필드교수는 불교미술의 보고(寶庫) 돈황은 동서문화 교류의 교두보로 서기 4세기부터 삼국·종교·예술 등 각 분야에서 변용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왼에는 워트필드 교수)

# “돈황을 보면 중국사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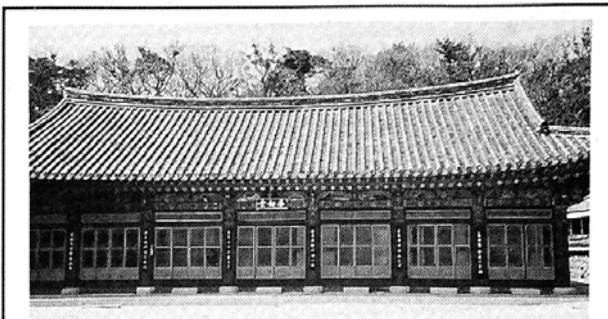
### 불화·장식통해 정치·문화연구 가능 “비단길 안전 기원이 석굴탄생 계기”

리적·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다. 돈황석굴의 형성배경은 불교신도들이 긴 사막여행의 안전을 받고 공양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서두를 시작한 워트필드 교수는 현재 4백92개의 장식 석굴들로 이루어진 돈황석굴은 일반적으로 千佛洞이라 불리며, 불교신도의 중요한 거점인 동시에 뛰어난 불교 회화와 조각물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광대하고 뛰어난 불교미술관이라고 설명했다.

돈황의 가장 큰 특징은 벽과 천장에 줄줄이 늘어난 각양각색의 천체한 색채와 옷으로 치장된 불타의 세밀 초상화들과 한 뼘의 공간도

없이 가득 메워져 있는 장식 문양, 실화·불상·천체의 인물들이 마치 하늘에 흩어진 꽃과 같이 우아한 유희와 음악으로 불국정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또 석굴의 벽화와 소조는 당시 사원내부의 생활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워트필드 교수는 설명했다. 석굴에는 참선하는 모습의 승려상이나 고승의 초상 조각이 있으며, 특히 초기 석굴에는 교각좌(交脚坐)의 미륵불이나 석가모니의 사유상(思惟像)이 많이 봉안돼 있음을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히 소개했다.

한명우 기자



심검당 주련은 사물의 분별과 쓰임새에 얽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동화사

심검당

良由取捨所以不如 (양유취사소이불여)  
着意用功總是痴寒 (착의용공총시치한)  
本來無物何論一體 (본래무물하물일체)  
不愛福田不樂生天 (불애부전불락생천)

도리어 버리고 취하는 마음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다 의를 갖고 용공함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로다 본래 무물인데 어찌서 일체를 논하는가

해설 심검당이 선수행의 도량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동화사 심검당의 주련도 선수행의 공경을 지칭하는 내용이다. 세번째 구절의 '본래무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래무물이란 본래무물(本來無一物)이라는 6조 혜능의 계승에서 그 의미를 찾아나타내고 있다. 혜능이 5조 홍인의 문하에 들어가 받아

는 행자로 지내다가 신수의 계승이 부족함을 알고 지은 계승으로 6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혜능의 계승은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물' 하쳐야진애(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보리에 나무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아니

다 본래 한 물건 없거니 어느 곳 법의를 입었음에도 두발을 벌려서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홍법국사 실상탑 환원율” 총주서민·사학자등 주장 총주서민 및 향토사학자들은 최근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문화제이관 정권으로 1915년 총주서민 동량면에서 경복궁 경내로 옮겨진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국보 제102호)과 실상탑비(보물 제359호)를 본래의 위치로 환원해야 한다고 이를 요청하고 나섰다.

# 왕인박사 탄생지 사적지 건의

### 정립추진위 “영암지역은 신라불교문화의 뿌리”

백제 왕인박사 탄생지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왕인 박사 탄생지 정립 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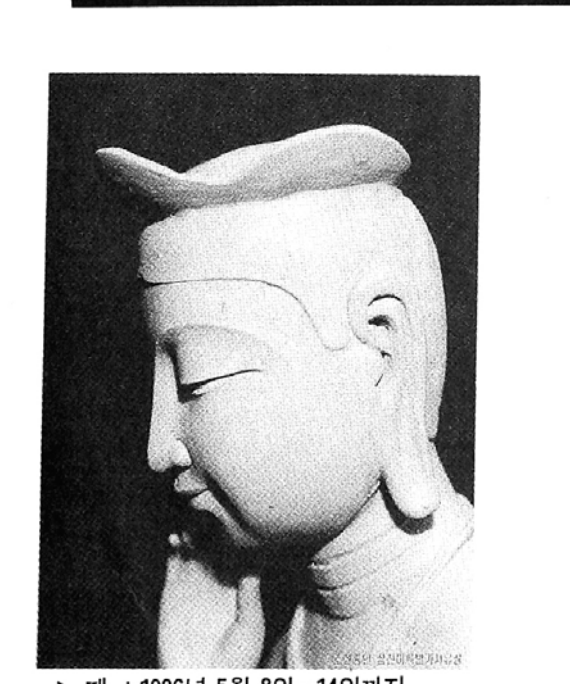
후회학들이 왕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소재 왕인석상.

영암군과 왕인박사 탄생지 정립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달 19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한병삼 박사(전 국립중앙박물관장)는 ‘고고학에서 본 영암’ 논문발표에서 영암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은 독자적인 문화를 성숙시켜 왔으며 5세기 말에는 백제 중앙문화에 밀려 명맥을 잃게 되지만 영암지역이 독자적으로 이뤄온 문화적 성숙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 뛰어난 불교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왕수영 박사(전 동국대 총장)는 ‘백제의 학술과 예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용봉향로 등 찬란한 백제 미술문화를 한층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석환 재일 한국사학연구회 부회장은 ‘일본 내 왕인박사 관련유적’에 대한 발표에서 각종 고고학적 자료의 발굴에 의해 일본문화의 기조를 배양한 왕인박사의 위업은 더욱 더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왕인박사 탄신지가 영암군 군서면 성기동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 삼천미륵반가사유상을 모시는 서원전



▶ 때 : 1996년 5월 8일~14일까지  
▶ 곳 : 서울 조형 갤러리(T.02/736-4804)  
▶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 서원법회 : 1996년 5월 8일 수요일 오후3시 조형갤러리 전시실

## 戒 卷

無我 前 조계종종정 서암스님 작품

---

## 宗 正 佛 花 一 界 世

\* 世界一花 前 조계종종정 서암스님 작품

대 방 사 주 지 도 안 경남 사천시 대방동 44번지 T.(0593)33-5197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미려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 가치가 물질적 수치로 제한되는 것이라고까지 믿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온갖 소유욕으로 양심이 무너져버린 지식인들의 인간과괴 행위는 그들이 다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력이 있다하는 것만으로 그들 행위가 면책되고 여기는 착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변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절망만 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마치 인간 이상이 실현되는 최고의 경지인양 잘못 말해 온 지난 시대의 고풍스런 정치적 증거들과 뒤떨린 상식들이 마침내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엄청난 불행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물의 죽음은 대표적인 불행입니다. 물이 죽자 시대가 흔들리고, 인간성은 콘크리트 벽속에 갇혀지고, 영혼은 더 이상 육신을 믿지 못하는 혼돈의 날들이 절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고 변화와 창조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의지가 다시 솟구쳐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희망은 참회통한 것이어야 하고, 그 변화는 전통적 삶의 진실을 끌어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창조 또한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찌기 미륵부처님은 고난 받는 사람과 시대를 극복해내는 의지로써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부처님 다음으로 인간세계와 민연 맺어진 후천불로도 믿어져 왔습니다. 이제 지치고 병든 20세기의 인류역사는 거대한 변화의 물살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깨끗한 희망의 세기입니다. 한층 더 청정하고 글센 의지로 맑고 고요한 가정과 사회, 세계와 자연이 함께 할 영원의 기쁨을 다지는 귀한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초대합니다. 21세기는 삼천미륵부처님과 함께 하는 세기입니다. 삼천미륵부처님제로의 여행에 당신의 발걸음도 얹어 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삼천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두손모음 삼천미륵부처님 모시는 안내 국민은행 663-21-0064-815 예금주 : 광병학